

美 국무부 종교자유보고 발표, 국무부 장관 파룬궁 박해문제 관심

[밍후이왕] 8 월 15 일, 미국 국무부는 2016 년 ‘국제종교자유보고’를 발표해, 전 세계 신앙 자유 정황을 주시했다. 중국과 기타 9 개 나라에 심각한 종교탄압이 존재하기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장관 렉스 틸러슨(Rex Wayne Tillerson)은 중국공산당이 신앙인을 박해한 행위를 주시하고, 기자회견에서 2016 년 파룬궁수련자 수십 명이 수감 기간 사망했음을 언급했다.

전세계 신앙자유 추진, 틸러슨 파룬궁 박해에 주의

미국 국무부장관 틸러슨은 당일이 보고와 관련한 간략한 논평에서, 신앙의 자유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 조의 미국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80% 인 인구는 신앙 자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앙 자유가 보호받지 못할 시 분쟁, 인권침해, 극단적 폭력주의가 자리할 기회가 더 커진다.” 틸러슨 장관은 발언에서 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이미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추진해 이를 개선하고, 국무부도 신앙을 줄곧 견지한 이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정부가 수천만 신앙자유 인사를 박해, 구류, 감금했고 파룬궁수련자 수십 명이 수감기간 사망했다. 위그르족과 티베트 불교도에 대한 경찰 단속도 심해졌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보고 머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시작부터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 나라다. 슬픈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점이다.”라고



■ 2017 년 8 월 15 일, 미국 국무부장관 렉스 틸러슨 장관은 2016년 ‘종교자유보고’를 발표할 때 2016년 파룬궁수련자 수십 명이 수감기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밝혔다.

트럼프는 각자의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중국 종교 자유 열악

중국공산당이 국민의 종교 자유 권리를 심하게 침해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1999 년부터 ‘특별관심 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분류됐다. 2016년 10월, 미국 국무부장관은 재차 중국, 수단, 북한, 미얀마 등 10 개국을 특별관심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보고에서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수감, 구류, 혹형 고문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독교, 파룬궁, 천주교, 티베트인 등을 포함한 단체가 모두 같지 않은 정도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파룬궁 박해 지속, 혹형으로 여러 명 사망

이 보고에는 2016 년 파룬궁수

련자 80 여 명이 수감기간 혹은 석방 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보고에는 두이화기금(DUI HUA Foundation) 데이터를 인용, 최소 3,403 명 파룬궁수련자가 감금됐고 330 명이 구류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납치와 판결된 숫자는 이를 대폭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당국은 여전히 정신적 박해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세뇌반(洗腦班)’을 포함해 강제로 ‘전향[轉化]’시키고 있고 어린 자녀의 입학 조건으로 가족에게 신앙 포기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는 무리, 공소인은 법적 근거 없음 승인

보고는 밍후이왕 보도에 의하면, 과거 1 년간 중국 여러 곳의 검찰원, 법원,公安 부문이 체포된 파룬궁수련자 (뒷면에 계속)



【역사상의 8 월】

뉘른베르크 ‘나치의사 대심판’

[밍후이왕] 뉘른베르크 ‘나치의사 대심판’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끝난 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미국이 주도한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 독일 범죄의사에 대한 심판이며, 12 차례 전쟁범죄심판중의 첫 차례이다.

이 한차례 심판은 1946 년 12 월 9 일에 시작돼 이듬해 8 월 20 일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모두 나치의 전국적인 위생부문과 정부관원 혹은 국가 급 의료연구 기구의 고급의료 인원이다.(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근무한 현직당위군 남녀 의사는 포함하지 않았음) 그들은 인도(人道)위반 죄로 고소당했는데 심각한 장애인과 유태인, 집시에 대한 ‘무통 치사 강령’의 제정과 초안에 참가했다. 그리고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이용해 비인도적인 ‘산 사람 실험’을 조직하고 지도했다.

살인 의사의 의학실험

의사의 천직은 본래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돌보는 것이다. 하지만 나치 집권 당시 대량의 독일 의사는 양지를 잃고, 나쁜 일에 동조했으며 나치당에 가입했고, 선후로 수감자와 피점령국의 평민을 이용해 극히 참혹하고 인성이 없는 “임신 중절 계획”, “최종소멸” “사망 강제 수용소”, “인체실험”, “인종비교”, “쌍둥이 비교”, “취골 접골(取骨接骨)”, “학질 실험”, “신약 치사량 실험”, “황린에 의한 심각한 화상 치료실험”등 끔찍한 인체 실험에 기술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다.



▲ 나치의사 Karl Brandt 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법정에서 사형 받았다. (서류사진)

많은 사람은 이런 의사의 손에서 참혹하게 죽었다.

명령집행은 핑계가 될 수 없다

고소에 직면해 나치의사들은 자신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더러 잔인 무도한 일을 하라고 한 그 어떤 구체적인 강제적 명령이 없었으며, 그 어느 독일 의사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해서 박해 받았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런 나치 의사들은 분명히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당시에 유명한 의학자, 과학자였는데 “명령복종”이란 이유로 그들의 극에 달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47 년 8 월 20 일, 법정에서는 나치의사에 대해 종신판결을 내렸다. Karl Brandt 등 7 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교수형을 집행했고, 4 명에게는 종신히를 선고했으며, 4 명에게 10 년에서 20 년의 갇지 않은 징역형을 내렸다.

1963 년, 나치 강제 수용소의 중

하층 독일 장교들을 겨냥해 독일에서는 또 프랑크푸르트심판을 했다. 심판 원칙은 아주 간단했다: 상급명령 복종은 곧 모살공범이다. 이번 심판에서 독일에서는 이런 유형의 안건 처리에서 법률기초를 다졌다. “상급명령복종”과 “친히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는 최악의 책임에서 해탈할 수 있는 이유로 되지 않았다. “복종은 곧 죄가 있다”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접수됐다.

오늘, 유엔의 ‘인권선언’을 포함한 세계상 대다수 인권에 관한 문건, 조약, 선언은 모두 제 2 차 세계 대전기간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깊은 관찰에서 기초한 것이다.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법정에서 진행된 조사심판은 더욱 그러하다.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법정은 선후로 4 년을 거쳤다. “주요 전쟁법 심판”, “의사 심판”, “법 집행관 심판”등을 포함한 12 차례 대심판이다.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법정 토대에서 유엔은 국제 정의 법정을 성립했다. 국제 정의 법정에서는 국가를 심판할 뿐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에 유엔에서는 2002 년에 국제 형사법정 (ICC 혹은 ICtT)을 성립해 전쟁 범죄, 반인류범죄, 종족 소멸 죄 중의 개인범죄 행위를 집적 책임지고 추궁하기에, 이런 범죄자는 다시는 국가, 정부 명의아래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했다. ◇

(앞면의 계속) 위법 행위가 없음을 승인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소와 판결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정부 첫 종교 자유 보고

2016 년 보고는 트럼프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종교 자유 보고로, 199 개 국가와 지역의 종교 자유 정황이 담겼다.

1998 년에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법’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를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국회와 행정당국에 제출해 해당 기관의 대외 지원, 외교자원 분배, 난민신청 등 정책 제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



2017 년 상반기 적어도 450 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 판결을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최신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상반기 적어도 450 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 판결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대륙번호사는 186 명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196 차례 무죄변호를 했다.

랴오닝, 산둥, 지린 3 개성은 박해가 제일 심한 지역이다. 전국의 40%이상을 차지한다. 불법 징역 판결인 수가 제일 많은 성은 랴오닝 91 명, 산둥 56 명, 지린 45 명, 헤이룽장 42 명, 허난 41 명, 쓰촨 38 명, 광둥 28 명, 간수 23 명, 허베이 22 명, 장수 20 명이다. 불법 판결은 28 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퍼져있다.

이 450 명 불법 징역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중 29 명이 박해원흉 장쩌민을 고소해 보복을 당해 판결 받았다.

196 차례 무죄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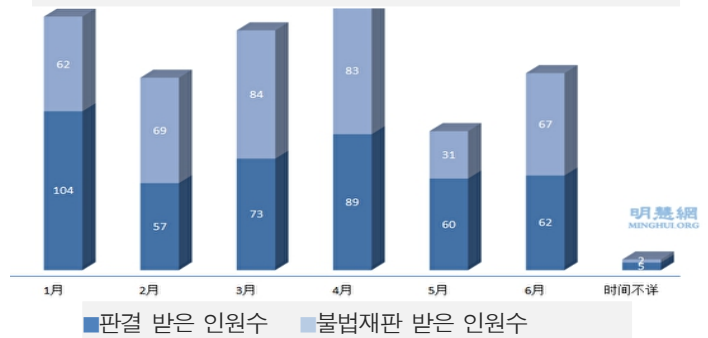
2017 년 상반기 중공은 371 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398 차례 불법 재판을 했다. 변호사 186 명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196 차례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들의 근거가 명백한 변호는 법정을 진감했고, 그 자리에 앉은 많은 공검법인원과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진상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밍후이 평론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은 '먼저 사람을 붙잡고 후에 죄를 정해 죄를 뒤집어 씌웠'기에 모함을 당한 것에 속한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범죄 행위다

대륙번호사 위문성(余文生)은 변호(辩护词)중에서 법정에 명확히 알렸다. 형법 300 조로 파룬궁수련생에게

2017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재판과 판결 받은 인원수통계



죄를 정하는 것은 바로 법률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진정한 범죄 이다. 그는 “공안기관이 형법 300 조를 잘못 사용해 죄명을 씌워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체포는 납치 죄가 구성되며, 감금은 불법감금죄가 구성되며, 검찰기관인원이 형법 300 조를 악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하면 사육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죄, 모함죄가 구성되며, 법원의 법관이 형법 300 조를 악용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양형 판결은 법을 어긴 심판 죄와 사육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죄가 구성되며, 노동교양소, 감옥, 세뇌반등 불법 구속 장소는 불법구금 죄가 구성 된다”고 말했다.

중국헌법 35 조에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할 자유가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제 36 조에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 ◇



8 개월 상소해 법정은 청두 파룬궁수련생의 3 년형을 철회하다

[밍후이왕] 2017 년 8 월 11 일 오전, 청두시 신두현의 파룬궁수련생 쑤칭화(苏青华)는 8 개월의 상소 끝에 그의 3 년 불법판형을 철회한다는 청두시 고신구 법원의 결정을 받고, 성두 피현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쑤칭화는 청두시 신두현의 사람이다. 파룬궁이 무고하게 박해 받는 진상을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5 년 9 월 2 일 저녁, 밖에서 기호 펜으로 대법진상을 쓰다가 고신구 썬와요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됐다. 후에 쑤칭화는 불법으로 청두시 피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당시 쑤칭화의 가족은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한 달이 넘어서야 쑤칭화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2016 년 12 월 29 일, 청두시 고신(기술산업)구 법원에서 쑤칭화를 불법으로 법정 심사한 후 억울한 3 년 징역 판결을 했다. 쑤칭화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했다. 반년이 넘는 상소 기한을 걸친 후 청두시 고신구 법원에서는 원 3 년 징역 판결을 철회하고, 쑤칭화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근 2 년이 되는 불법감금 중 쑤칭화는 67 일간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으며, 철갑모를 씌우고는 잠 잘 때에도 벗지 못하게 했다. 또 여러 명의 범인들이 수갑과 족쇄를 교차로 채운 후 억지로 들어 올렸다.

그간 쑤칭화는 4 차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고, 2 차례나 단식한 이유로 병원에 보내졌고, 병원에서는 악인들이 혹독하게 때렸다. 또 여러 차례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했고, 여러 차례 강제로 채혈했다.

1 월부터 6 월까지 적어도 54 명 파룬궁수련생이 안건 철회로 석방 되었다

2017 년 초부터 대륙 여러 지역의 검찰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소송을

철회하고, 법원에서 안건을 철회하고, 구치소에서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2017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적어도 54 명 파룬궁수련생이 석방됐다

현재 대륙에서 갈수록 많은 공검법사(公檢法司)인원들이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현 정권의 새 정책에 순응하여 다시는 장쩌민 집단의 박해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며, 실제행동으로 다시는 위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공검법인원은 주동적으로 박해 지령을 제지하고, 회피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며, 어떤 검찰원은 철회, 기소하지 않고 파룬궁수련생을 직접 석방한다. ◇

가로수 길에서 다행히 파룬궁수련생을 만나다

[밍후이왕] 우리 집 부근에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있는데, 나는 퇴직 후 늘 그곳에서 산책한다. 그러다 보면 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미소 짓고 있어 누가 파룬궁수련생이고, 누가 다른 종교 신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부터 그들의 눈빛을 보면 구별이 됐다. 직장에 다닐 때는 너무 바빠 동분서주 뛰어다니느라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고, 외출할 때도 대부분 차를 타고 다녀 그런 일을 만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생이 나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 ‘내 기억에, 공산당이 파룬궁을 배우지 못하게 한 게 이미 십 몇 년 전 일인데, 어떻게 아직도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지금은 파룬궁 진상을 듣는 게 참 즐겁다. 모두 우리 선조가 남겨준 보물이었기에 모두 인정할 수 있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행위를 알게 됐을 때는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고, 또 깊은 허탈감이 들었다. 그 후 다시 파룬궁수련생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밍후이왕 간행물(파룬궁 진상 간행물)을 달라고 했다. 그 간행물에는 인류 고금의 경전에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망라돼 있었고, 과학도 다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었고, 볼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흥금 또한 커졌다. 이때부터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생명의 귀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고, 천재인화로 죽은 사람들이 어째서 재난을 당하게 된 건지 알게 됐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말한다. 파룬궁수련생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 ‘자기’와 ‘그’를 알려주고 있다. 공산당이 날조한 유언비어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믿지 않고, 타인도 믿지 않게 해, 재난이 닥칠 때 피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다. 그들 가족은 당연히 공산당을 향해 결판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나는 항상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외우고 있다. 이 9개 글자를 외운 뒤부터 이전에 넘어져서 걸을 때마다 아팠던 발이 다시는 아프지 않았고, 불편했던 위장도 좋아졌다. 과거에 뜨개질을 많이 해서 어깨, 팔꿈치, 경추의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다 사라졌다. 날이 갈수록 더욱 젊어지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 파룬궁수련생은 나에게, 이 9개 글자는 전 세계 선량한 사람이 모두 좋아한다고 했다. 외국 인도 중국어로 외워야 신기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천상과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이야기(외국 라디오방송에서)를 들었고, 또 불교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어느 정도 교리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도 이해를 못하고 종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들이 알려주는 것은 모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다만 명명백백하게 살고 싶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가?” 그리고 또 말한다. “만약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처럼 당신 신앙과 당신 자신을 박해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들은 모두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 한다. 다만 “공산당은 파룬궁을 수련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물러간다.

내가 파룬궁을 믿게 된 것은, 파룬궁은 사람을 도와 복을 얻고 재난을 피하게 하며, 인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



연변박해소식

◆지린 연변주 훈춘시 3 파출소 경찰 탱커 등은 파룬궁수련생 동무리를 소란하다

[밍후이왕] 전번 주 화요일과 금요일(8월 22일과 8월 25일) 훈춘시 3 파출소경찰 탱커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다른 한 경찰이 정황요해란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동무리(董木麗)의 집에 두 번 찾아가 동무리와 가족을 소란했다. 그 중 한 경찰의 제복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직접 녹화했다.

동무리는 두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다. “몇 년 전에는 세 차례나 수술하고 신체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수련한 후 돈 한 톨 쓰지 않고, 신체가 건강해졌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좋은 공법을 왜 못하게 합니까?” 후에 경찰은 화제를 바꾸었다. 그들은 또 동무리 딸의 전화를 달라고 하다가 딸에게 거절당했다. 떠나가기 전 동무리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했다.

◆지린성 투먼시 스센진 파룬궁수련생 초수제 소란받다

[밍후이왕] 2017년 8월 11일 저녁 7시 30분, 스센 파출소경찰은 파룬궁수련생 초수제(迟淑杰)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으로 사람을 납치했다. 개인물품 파룬궁서적을 강탈해갔다. 듣자 하니 초수제는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투먼 병원에 있었는데 아침에 또 투먼 국보대대에 끌려갔고, 지금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다.